

요약

미국 플로리다주 자동차 보험시장은 일방향적 변호사 비용 제도와 혜택 이전 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해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및 보험료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제도의 오·남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플로리다주 상원은 자동차 유리법 개혁안을 제출하고 심의 중이며, 개혁안이 승인될 경우 자동차보험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플로리다주 자동차 보험시장에서는 일방향적(One-way) 변호사 비용 제도와 혜택 이전(Assignment Of Benefits; AOB) 제도의 오·남용 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방향적(One-way) 변호사 비용 제도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보험계약자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지만, 보험회사가 승소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임
- 플로리다주에서는 ‘판매업자와 변호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혜택 이전을 받고 불필요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을 수행한 뒤, 청구에 이익을 제기하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혜택 이전이 오·남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3자(자동차 유리 수리회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행을 혜택 이전(AOB)이라고 함
- 플로리다주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소송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유리 교체를 중심으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자동차 유리 관련 소송 건수는 2011년 591건에서 2021년 28,156건으로 40배 가량 증가함¹⁾
 - 미국의 50개 주 중 플로리다주에서 의심스러운 자동차 유리 관련 청구가 가장 많았음
 - 플로리다주는 사고 당사자 쌍방이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주인 무과실주(No-fault state)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시장에서 사고 청구에 변호사가 관여하는 비중이 59%로 미국 전체 평균인 45%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²⁾

○ 플로리다주는 이러한 오·남용 행태로 인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비쌀 뿐만 아니라, 높은 보험료 상승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 플로리다주의 2020년 평균 연간 자동차 보험료는 1,458.49달러로 미국 평균보다 24% 정도 높았으며,³⁾ 2023년

1) III(2023. 2), “Trends and Insights: Addressing Florida’s Property/Casualty Insurance Crisis”

2) Insurance Research Council(2023. 3. 22), “Auto Insurance Affordability in Florida”

3) NAIC(2023. 1), “2019/2020 Auto Insurance Database Report”

자동차 보험료는 2022년에 비해 15% 상승하여 미국 내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함⁴⁾

- 2020년 플로리다주보다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높은 주는 루이지애나주, 로드아일랜드주, 뉴욕주, 컬럼비아 특별구, 미시간주뿐이었음
- 사고 빈도 등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⁵⁾ 향후에도 보험료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수리 비용의 경우 전국 평균을 하회하였지만, 다른 주들에 비해 증가세가 가팔랐음

○ 관련 제도의 오·남용 억제를 위해 여러 기관들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 보험범죄방지국(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 NICB)은 플로리다 법무개혁연구소(Florida Justice Reform Institute; FJRI), 플로리다 개인보험연맹(Personal Insurance Federation of Florida; PIFF)과 함께 사기성 자동차 유리 관련 청구를 줄이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Fix the Cracks'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 플로리다 상원은 이러한 제도의 오·남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최근 자동차 유리법 개혁안(CS/HB 541: Motor Vehicle Glass)을 제출하고 심의 중이며,⁶⁾ 개혁안이 승인될 경우 자동차보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유리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주 운전자들이 자동차 보험 청구에 대한 법적 권리를 수리점에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임
- 자동차 보험 청구에 대한 혜택 이전 제도 폐지 외에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일방향적(One-way) 변호사 비용 제도 폐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해당 개혁안에 대한 승인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려짐
- DeSantis 주지사가 2019년 혜택 할당의 오·남용 억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점, 현재 모든 보험상품에 대한 일방향적 변호사 비용 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유리법 개혁안의 승인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4) CBS Miami(2023. 2. 16), "Florida Sees Biggest Jump in Car Insurance Rates"

5) Insurance Research Council(2022. 8. 22), "State Variations in Auto Insurance Affordability"

6) The Florida Senate(<https://www.flsenate.gov/Session/Bill/2023/541>)